장려상

내가 가꾸는 삶

(『명혜』를 읽고)

김예나

명혜는 늘 삶의 갈림길을 마주했다. 물론 나도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선택이었을 것이다. 명혜는 어떤 길로 이끌렸을까?

명혜는 가장 먼저 '혼인'이라는 문제 앞에 놓였다. 지금 보면 한창 어린 14살 때 말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 가정을 잘 꾸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로써 명혜를 포함한 조선 시대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었다. 그에 비해 내 삶은 불만 없고 고통 없는 아기의 삶이었다.

의사라는 꿈을 꾸고 봉사하는 명혜를 보며 나는 '과연 나의 삶이 내가 가꾸는 게 맞을까? 그냥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갇히게 되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난 그저 빛만 추구하는 해바라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어둠을 헤쳐 나가는 게 아닌 좁고 긴 길인 어둠은 비켜 가고 넓고 짧은 빛을 따라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라는 네 글자로 다른 사람의 어둠을 같이 헤쳐 나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다음 명혜에게 찾아온 갈림길이 '꿈'이었던 점에서, 나의 삶에서 '꿈'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보았다. 나에겐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을까? 명혜는 '꿈'을 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 '나라는 존재가, 의사를?'부터 시작해 '내가 아니면 생명을 살릴 수 없는데…….'까지, 내적 갈등으로 명혜는 자신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고생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눈에는 한 단계 더 성장한 명혜의 모습이 아니 명혜의 삶이 보였다.

그렇게 명혜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가꾸기 시작했다. 명혜는 마음 놓고 털어놓을 사람도,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여념도 없었지만, 자신의 삶이 암흑으로 덮쳐도 헤쳐 나간 명혜를 보며 느꼈다. 명혜는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존재라고. 갈등 속에서도 자신을 다독였던 명혜. 과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에게 자신감을 선물하고, 꿈을 선물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말해 주고, 그리고 명혜처럼 자신의 삶을 가꾸는 방법을 말해 주고. 난 오늘 그 방법을 알았다.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 하나면 내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명혜처럼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난 나에게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줄 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난 과거의 나에게, 지금 나에게,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싶다.

"파이팅! 좌절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해. 그럼 명혜처럼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늘 나 자신을 기억해!"